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 회의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14:00~18: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 명단 : 김정근, 김성량, 장은정, 김영희, 박재성, 구모영, 유선미, 박영주, 안지혜, 이우영

○ 지원사업의 목적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연지원을 통해 문화 취약계층과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원로예술인과 단체의 활동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기초공연예술(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아카이브 비용을 포함한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하나는 실연자, 제작진 대상 지원과 창작자 대상 지원입니다. 이는 실연자 중심 지원에서 연출, 극작, 각색, 작곡, 작사, 작창, 안무 등 창작자들에 대한 유형도 추가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사업의 심의과정 및 심의기준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총 171건이 지원 신청했으며, 행정결격은 4건으로 총 167건에 대해 심의 진행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연극·뮤지컬 69건, 무용 10건, 음악 45건, 전통예술 38건, 다원예술 5건이 심의 대상이었으며, 올해 부터 새롭게 적용한 유형별 신청으로 구분하여 접수하였는데 이중 창작자 유형이 41건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모 심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1차 전수검토제로 제출서류 검토 및 온라인 가채점 방식으로 진행했고, 2차 종합토론에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단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50%)

-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진행되는가?
-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예술적 성취가 기대되는 사업인가?
- 문화 취약 계층 및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증진에 기여하는가?

2) 사업계획의 충실성(30%)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인력 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예산이 합리적이며 신청 규모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3) 수행단체의 역량(20%)

- 사업주체의 실적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 전담 기획·행정인력을 배정하였는가?

심의회는 전수 검토제로 개별 채점으로 진행되어 심의위원들이 위의 기준에 따라 채점한 점수들을 총점으로 도출하고 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르별로 나누어 통합심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예상 작품 수의 2배를 후보로 올리고 장르별 심의위원들이 후보로 올려진 작품들의 사업적 특성과 장, 단점에 관해 설명하여 1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차 논의는 장르별로 배정된 지원금 규모에 따라 지원 단체들의 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체가 신청한 지원금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 단체의 지원 예산을 줄여 추가 후보 단체에게도 선정 기회를 주려 했으나, 각 단체의 예산 축소가 오히려 각 사업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장르별 위원들의 여러 질문과 통합논의가 이어졌고, 그 이후에 통합 심의 결과로 총 27단체, 장르별로는 연극 뮤지컬 9단체, 무용 2단체, 음악 7단체, 전통예술 7단체, 다원 예술 2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지역균형제가 적용되어 수도권에서 14단체, 비수도권에서 13단체 선정되었고, 유형별로는 실연자, 제작진 [유형1]이 20건, 창작자 [유형2]이 7건 선정되었습니다.

○ 심의 총평

본 사업 심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여러 지원신청 사업 계획 중 기존 작품들의 재공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초연이나, 창작작품이 아니더라도 현재성과 작가 정신이 살아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심의위원들이 동감했습니다. 본 사업 취지와 목적이 복지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원로의 연륜과 시대적 유의미성, 작품성을 갖춘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가의 주된 초점이었습니다.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에 주요 원로예술인의 최소요건 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공연예술계가 그러하게 발전되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비슷한 서술방식과 구성 방식으로 작성된 건에 대하여, 이 경우 독창성이나 주제에 심도 있게 접근하는 관점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고, 어떠한 경우에는 원로예술가에 대한 적당한 보상보다 일반 비원로(스텝) 인력비용 등이 높게 책정되어있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의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사업에 더 높은 평가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장르의 다양한 공연예술이 예술 현장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지원하신 모든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정되신 예술단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하셔서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의 한정에 따라 장르별로 좋은 평이 있던 작품도 선정하지 못해 모든 심의위원이 안타까웠습니다만 아쉽게도 미선정된 단체 분들께서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시어 향후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내년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